

명리학에서 십성(十星)의 성립과 개념 확장에 관한 연구

이남연*,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Expanding the Concept of SHIPSONG in Myeonglee

Nam-Yeon Lee*,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명리학(命理學)에서 사용되는 육친(六親) 혹은 육신이라 불리는 십성(十星)의 근원과 주요 고전에서의 십성의 의미를 확인하고, 현대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십성의 개념을 분석하는 한편, 단순한 육친관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십성의 개념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명리학에서 육친의 관념을 정하고 육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연해자평』이다. 『연해자평』, 『삼명통회』, 『자평진전』 등 주요 고전 명리학에서 설명하는 십성의 내용은 대부분 순수 육친이라는 설정에 그쳤다. 이후 1963년에 발간된 『사주정설』에서는 육친의 설정에 그친 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십성의 작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김기승의 『과학명리』는 십성의 개념을 단순히 육친관계와 작용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심리와 선천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고전에서의 십성의 개념과 현대 명리학에서 김기승의 『과학명리』에서 설명하는 십성의 개념과 성향을 알아보고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십성에 대한 인식 및 활용면에서 향후 명리학(命理學)의 연구에 발전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명리학, 십성, 육친, 심리, 선천적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nfirm the source of Shipsong called Yookchen or Yooksheen used in Myeongleehak and the meaning of Shipsong in major classics. It i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Shipsong used in modern Myeongri, and to study in-depth the concept of Shipsong in a more advanced form, not just in family relationships. In reality, the concept of Yookchen was defined and the term Yookchen was first used in Yeonhaejapyeong. Most of the contents of the major classics, such as Yeonhaejapyeong, Sammyeontonghwe, and Japyeonjinjeong, were limited to setting only family concepts. Then, in 1963, Sajoojeongsul was published, which explained both family relations and the action of Shipsong.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scientific reputation written by Ki-seung Kim did not only explain the concept of Shipsong but also opened a new chapter to confirm human psychology and aptitude.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concept and tendency of Shipsong described in Kim Ki-seung's Science Myeongri in the major classics and how the concept changed. I hope this study will be of some help to the study of Myeongleehak in the future in terms of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Shipsong.

Key Words Myeongleehak, Shipsong, Yookchen, psychology, aptitude

Received 30 Dec 2021, Revised 06 Jan 2022

Accepted 17 Jan 2022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명리학은 연월일시의 출생 정보를 천간 지지의 60갑자로 정리한 후 천간지지에 부여된 음양과 오행의 관계를 응용하여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명리학의 기본이 되는 구조가 사람이 출생한 연월일시에 부여된 60갑자가 4가지 기둥이 되면서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도합 8자가 되므로 흔히 명리학을 사주팔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 낙록자의 『낙록자삼명소식부』와 귀곡자의 『귀곡자유문』으로부터 시작한 명리학은 고법 삼명학을 거쳐 현재의 신법 이론체계인 자평학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자평(徐子平)은 그 이전에 연주를 중심으로 한 고법체계의 명리학을 일주를 중심으로 자평명리학을 창안하여 사주명리학 이론의 대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²⁾. 그 이후 서승(徐升)이 연해(淵海)와 연원(淵原)을 합본한 『연해자평(淵海子平)』은 신살론, 시결론, 격국론 등 방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명의 장남(張楠)은 『명리정종(命理正宗)』을 편찬하면서 『연해자평』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고, 만민영(萬民英)은 『삼명통회(三命通會)』를 저술하여 방대한 명리학 이론을 집대성하였다. 그 외 명의 유백온(劉白溫)은 『적천수(滴天髓)』를 편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청대(清代) 초기에는 진소암(陳素菴)은 적천수 해설서인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를 저술하였으며, 『명리약언(命理約言)』 저술하기도 했다. 그 외 청의 심효철(沈孝瞻)은 『자평진진(子平眞詮)』을 저술하였는데 이때 나온 자평진진에서는 십성의 길흉에 따른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분류하여 순용과 역용을 구분한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를 구체화하여 그 후 임철초(任鐵樵)에 의해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가 나오면서 『자평진진』과 『적천수』는 『난강망』과 더불어 명리학의 교과서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백영관(본명 최영철)의 『사주정설(四柱精設)』과 김우재의 『팔자대전(八字大典)』, 1964년 이무학의 『명리정문(命理正門)』이 연이어 출간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었으나 대부분 중국의 명리서를 요약하거나 번역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

나 1969년 이석영(李錫映)³⁾은 20년간의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삼명통회』, 『적천수』, 『연해자평』, 『명리정종』,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약언』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한 『사주첩경(四柱捷徑)』 전 6권을 저술하였다. 그것은 그간 중국 명리학 서적의 주류인 용신 격국의 틀을 넘어서 육신과 신살을 주로 사용하는 명리학을 해석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통변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명리학계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⁴⁾.

이런 점을 볼 때 십성은 명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용신, 격국 등에 대한 도출법과 사용법에 대한 고찰로써의 큰 틀에서 많은 비중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십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의되면서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것이 격국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면서 사길신, 사흉신이라는 개념 정립에도 크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십성의 시원적 개념과 발전과정 및 현대명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십성을 개념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본 연구자는 십성이 정립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주요 고전에서 다루고 있는 십성의 개념적 정의 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현대 명리학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십성의 개념과 십성의 활용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십성의 개념과 성립

십성이란 사주(四柱) 명식에서 주인되는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그 일간이 다른 천간(天干)들과의 생극(生剋) 관계를 말하는 명리학의 용어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십성은 ‘비견(比肩)·겁재(劫財)·식신(食神)·상관(傷官)·정재(正財)·편재(偏財)·정관(正官)·편관(偏官)·정인(正印)·편인(偏印)’의 열 개를 명칭하는 것으로 십성이라는 명칭 외에 십신(十神), 육친(六親), 육신(六神)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십성은 일간에서 다른 간지(干支)들을 바라보아 상호 생극의 관계를 살펴본 후 다시 음양(陰陽)의 배분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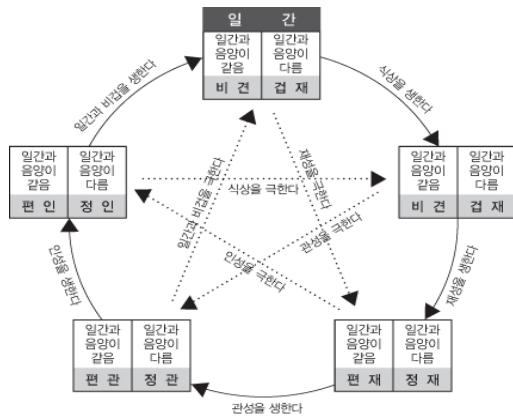
1) 춘추전국시대의 楚나라 사람, 『鬼谷子遺文』 저술, 唐의 李虛中이 註釋하여 『李虛中命書』 편찬.

2) 박계범(2017), 「命理學의 滴天髓, 子平眞詮, 窮通寶鑑 用神論 比較 研究」,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쪽.

3) 이석영(1920~1983)은 『사주첩경 1-6권』은 정식으로 출간하였으나, 그 외 그의 저술 『역경학』, 『자강진결(上,下)』, 가칭 『격국론』은 정식으로 출간되지 못하고 등사판체로 전해진다.

4) 설진관(2021), 「경찰공무원의 위험감수수준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10쪽.

라 정(正)·편(偏)으로 구분하고 이때 산출된 십성의 부여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비견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서로 같은 것을 말한다. 반대로 겁제도 일간과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이다. 식신은 일간이 생(生)해주는 것으로 음양이 서로 같은 것을 말하는데, 만일 음양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상관이라고 한다. 정재는 일간 오행의 극(劑)을 받으면서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이며, 이때도 음양이 서로 같으면 편재라고 한다. 정관은 일간의 극을 받지만 일간과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며, 극해오는 오행과 음양이 같다면 편관이라고 한다. 정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음양이 같으면 그것을 편인이라 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십성의 성립⁵⁾

3. 고전에서 십성의 개념

3.1 십성의 기원에 대한 고찰

오늘날 명리학에서 통용되는 십성의 기원을 살펴보면, 먼저 『淮南子』 「天文訓」에는 오행의 상생 상극 상비 관계를 육친관계에 논의되기도 했지만⁶⁾ 육친에 대한 완전한 개념이 정립되었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육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시기를 서한의 『주역』에 오행의 개념을 더한 해석을 시도한 경방(京房)이라고 보

는 견해가 많다. 경방은 역학에 관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저술은 대부분 소실되어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지 실제 남아있는 자료는 없고 그나마 이것도 경방이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닌 후대의 학자들이 경방의 역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각종 문헌에서 찾아내어 재편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경방은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길흉을 점단하면서 오행 생극으로 육친관계를 정리하였다. 경방이 사용한 육친 관념은 오행 생극 관계로부터 추론된 점과 가족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훗날 명리학에서 대두되는 육친관념과 일치한다. 경방은 폐효상과 폐효상의 길흉을 해석하면서 오행의 생극 관계로 육친 관념을 정의하고 그 육친관계를 주역해석 및 점사의 해석에 활용하였다.⁸⁾ 경방은 그의 육친관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팔괘 귀(鬼)는 계효(系爻)가 되고 제(財)는 제효(制爻)이고 천지(天地)는 의효(義爻)가 되고, 복덕(福德)은 보효(寶爻)가 되고, 동기(同氣)는 전효(專爻)가 된다.”⁹⁾

그러나 실제 명리학에서 육친의 관념을 정하고 육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연해자평이다. 다만 연해자평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 육친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것이 경방의 방식과는 다른 점이다.

3.2 주요고전에 기록된 십성의 개념

3.2.1 『연해자평』에서의 십성의 개념

『연해자평』에서 십성은 육친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남명(男命)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육친(六親)이란 부, 모, 형제, 처재, 자손이다. 일간을 중심으로 정인은 친모(親母)요, 편인은 편모(偏母)이거나 조부(祖父)이다. 편재는 부(父)이고 모(母)의 부성(夫星)이고 또한 첩(妾)이다. 정재는 처(妻)가 되고 편재는 첩(妾)이 되고 부(父)가 된다. 비견은 형제자매이다. 칠살(七殺)은 아들이요 정관은 딸이다. 양(陽)이 남자가 되고 음(陰)

5) 김기승(2016),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217쪽.

6) 『淮南子』 「天文訓」: “子生母曰義, 母生子曰保, 子母相得曰專, 母勝子曰制, 子勝母曰困”.

7) 이기선, 「경방역의 구성체계와 응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16, 33쪽.

8) 정하용(2013), 「卦氣易學과 命理學의 원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8쪽.

9) 『京氏易傳』: “八卦爲繫爻, 財爲制爻, 天地爲義爻, 福德爲寶爻, 同氣爲專爻”.

이 여자가 된다. 식신은 손자(孫子)이고 상관은 손녀(孫女)이고 조모(祖母)이다.”¹⁰⁾

이어서 여명(女命)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인명(婦人命)은 육친을 취함에 남명과 더불어 같지 않다. 관성을 취하여 부성을 삼고 칠살은 편부(偏夫)이다. 식신은 아들이고 상관은 딸이다. 경(經)에 이르기를 남자는 일간을 극하는 자로 후사(자식)를 삼고 여자는 일간이 생하는 자로 자식과 노비를 삼는다. 연(年)은 조상(祖上)이 되고 월(月)은 부모와 집안의 백숙(伯叔) 형제가 되고, 일주(日主)는 처첩(妻妾)과 자신이 된다. 또 육친의 극을 받음은 어떠한가? 인수가 재(財)를 보면 모친과 조모를 극하고 비겁과 양인(羊刃)을 보면 처첩과 부친을 극한다.”¹¹⁾

이상과 같이 『연해자평』에서 말하는 육친 즉 십성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삼명통회』에서의 십성의 개념

『삼명통회』에서는 『연해자평』과 달리 보다 구체적 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음양은 어떻게 배합이 되어 부부가 육친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은 甲이 乙을 보면 누이가 되고, 乙이 庚금의 妻가 되며, 丙火는 丁火가 누이가 되고, 丁火는 壬水의 妻가 되며, 戊土는 己土의 아우가 되고, 己土는 甲木의 妻가 되며, 庚金은 辛金의 아우가 되고, 辛金은 丙火의 妻가 되며, 壬水는 癸水가 아우가 되고, 戊土의 妻가 되어 일음일양이 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고, 부부가 되고 난 후에 부자기간이 생기며 부자기간이 된 연후에 형제자매가 생긴다. 그래서 육친은 부모·형제·처자가 되는 것이다.”¹²⁾

10) “夫六親者 父母兄弟妻財子孫是也。用日干爲主 正印正母 偏印偏母 及祖父也。偏財是父 乃母之夫星也。亦爲偏妻 正財爲妻 偏財爲妾爲父是也。比肩爲兄弟姊妹也。七殺是男 正官是女 陽爲男 陰爲女, 食神是男孫 傷官是女孫 及祖母也.”, 서승, 『淵海子平』, 무릉출판사, 2004, 149쪽.

11) “婦人命取六親 與男命不同。取官星爲夫星 七殺是偏夫。食神是男 傷官是女。經云 男取剋干爲嗣 女取干生爲子息及奴婢也。年爲祖上 月爲父母 伯叔兄弟門戶 日爲妻妾己身。且如六親受剋 何如 印綬見財 剋母及祖母也。見比劫羊刃 剋妻妾及父也”, 서승, 위의 책, 149쪽.

12) “陰陽何所配合,爲夫婦以成六親,如甲以乙爲妹,配如庚金爲妻,丙以丁爲妹,配如壬水爲 妻,戊爲己配甲,庚以辛配丙,壬以癸配戊,一陰一陽,配成夫婦,有夫婦,然後有父子,有父子, 然後有兄弟,六親者,父母兄弟妻子也.”, 만민영, 『三命通會』,

『삼명통회』에서는 육친의 범위를 부모와 형제, 처자(妻子)로 한정하면서, 연해자평에서의 부모와 형제, 처재(妻財), 자손과는 제한하여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육친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육갑(六甲)은 기(己)를 아내로 맞아 처로 삼고, 갑기합(甲己合)하여 생하는 경(庚)신(辛)을 자식으로 삼는다. 남자는 (일간을) 극하는 간(干)을 취하여 후사(後嗣)를 잇는 것으로 삼고, 여자는 (일간이) 생하는 간을 취하여 자식으로 삼으니 기는 경신의 어머니요, 경신은 기의 자식이다. 경이 을(乙)을 아내로 맞아 처로 삼으면 을경합(乙庚合)하여 병(丙)정(丁)을 생한 즉, 을경은 병정의 부모요, 경이 부가 되고 을이 모가 되니 나를 생하는 음간(陰干)을 모로 삼고, 내가 극하는 양간(陽干)을 부로 삼으며, 나를 극하는 관(官)을 자식으로 삼고, 내가 극하는 재(財)를 처로 삼으며, 건주어 응하는 것을 형제자매로 삼고 처를 생하는 음간을 장모(丈母)로 삼으며, 처가 극하는 양간(陽干)을 장인(丈人)으로 삼고, 나의 여식(女息)을 극하는 것을 사위로 삼고, 식신을 손자로 삼으니 나머지 육친도 모두 십간 변화(變化)의 취용(取用)이다.”¹³⁾

3.3 『자평진전』에서 십성의 개념

『자평진전』에서는 십성에 대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궁(宮)을 나누어서 배합한다는 것은 곧 연(年)월(月)일(日)시(時)의 위에서 아래로 조상, 부모, 아내, 자식을 배합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지(地支)에 서로 배합하는 것이 적합하고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 사용하는 신이 정인에 배합되면 어머니가 되고 내 몸이 출생한 곳으로 나를 생하는 것을 취한다. 편재는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편재는 모(母)의 정부(正夫)가 되는 것으로 정인이 모(母)인 즉 편재는 아버지가 된다. 정재는 아내가 되고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이다.”¹⁴⁾

「論六親」.

13) “六甲娶己爲妻 甲己合而生庚辛爲子。男取剋干爲嗣 女取干生爲息 則己者庚辛之母 庚辛者己之子也。庚娶乙木爲妻 乙庚合而生丙丁 則乙庚者 丙丁之父母 庚爲父 乙爲母 故謂陰干生我爲 母 我剋陽干者爲父 剋我者爲官爲子 我剋者爲財爲妻 比和者爲兄弟姊妹 生我妻陰干爲丈母 妻 剋陽干爲丈人 剋我女者爲女婿 食神爲孫 其餘六親俱於十干變化取用”, 위의 책.

14) “其由宮分配之者 則年月日時 自上而下 祖父妻子 亦自上而下 以地相配 適得其宜不 易之位也 其由用神配之者 則正印爲母 身所自出 取其生我也 若偏財受我剋制 何反爲 父 偏

『자평진전』에서는 연지(年支)를 조상, 월지(月支)를 부모, 일지(日支)를 아내, 시지(時支)를 자식으로 배속한 후 지지를 위주로 조상과 부모, 배우자, 자식을 판단하고 배속된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더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연해자평과 삼명통회와 별 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현대 명리학에서 십성의 개념

고전 명리학에서 논하는 십성이 주로 육친에 대한 설정으로 그치는 반면에 20세기에 이르러 십성의 개념을 육친에 대한 설정에 머물지 않고 심리적 측면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명리학계에서도 다소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 명리학에서의 십성 개념은 1963년에 출간된 백영광의 『(비진) 사주정설』에서 설명하는 십성(十星)의 개념¹⁵⁾이 2000년대 초반까지 주류를 이루었는데 국내 명리학계에서는 이 『(비진) 사주정설』에설 설명하는 십성(十星)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다. 그후 설진관은 윤경선의 3인의 『(설진관 명리학) 야학신결』에서 십성의 육친에 대하여 본가를 비롯하여 처가 및 시가로 확장한 배분을 시도하였고 십성의 성향에 대하여 다소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기승은 『과화명리』에서 십성의 성향에 대하여 심리학적 개념을 융합한 신개념의 십성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주명식을 통한 선천적인 성향과 특정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김기승의 십성의 개념은 별도로 기술한다.

4.1 현대 명리학에서 십성의 개념

현대 명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십성의 개념은 대부분 백영광의 사주정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주정설에 기록된 십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비견은 형제, 친구, 조카, 남편의 첩을 의미하고, 비견의 특성으로서는 양자, 분가, 독립, 이별, 분리 등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과단독행하여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타

財者 母之正夫也 正印爲母 則偏才爲父矣 正財爲妻 受我剋制”,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자평진전』, 무릉출판사, 178-179쪽.

15) 백영광(2006), 『비진 사주정설』, 명문당.

인과 불화쟁론에 빠지고 나아가 비방 불리를 초래하기 쉽다. 심성이 고독하여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한다고 설명한다. 겁재는 비견과 같이 형제, 이복 형제, 남편의 첩을 표시하는 육신으로서 교만 불손하고 쟁투,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을 너무 낮춰 보는 버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상극하여 배우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망만 커서 투기와 요행을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재, 파산하고 이산, 고정을 초래하기 쉽다. 사주 중에 겁재가 많으면 남녀 공히 배우자와 자녀를 극해하고 형제, 자매, 친구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세상의 불신 및 비방을 초래하기 쉽다고 설명한다. 공동사업 등에는 가장 부적합하다는 암시가 있다고 설명한다. 식신은 남자에게 장인, 장모, 조카 및 손자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자식, 손 및 친정의 조카를 의미한다. 식신은 그 특성이 의식주가 풍부함을 의미하고 소득, 봉록, 자산, 가재 등이 윤택함을 나타낸다. 또 신체가 풍비하고 성질이 명량화창하며 복록이 많다. 그러나 일면 앞서서 자식들의 공양을 받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사업을 경영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는 유감이 있다. 인의도덕의 이념이 깊고 자녀와 인연이 많은 것은 이 육신의 미점이나, 심미적 성능을 가지고 가무를 즐기는 반면 색정에 빠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상관은 조모 또는 외조부를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첩의 어머니, 여자에게는 자식들을 의미한다. 상관은 교만하여 사람을 알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비록 내심은 온정을 품고 또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해, 경쟁, 실권, 소송 등을 야기하기 쉽다. 만약, 사주에 인수 또는 편인이 있으면 이상과 같은 흉조는 제압되며 무사하나, 비견 또는 겁재가 있으면 상관의 특성은 더욱 증가된다고 설명한다.

편재는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첩 또는 처의 형제들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의미하며 사주에 있는 편재는 손자를 의미한다. 이 편재의 특성은 강개의 정신이 있고, 좀 변굴한 점이 있으나 자성이 담백하고 수식이 없다. 일건 재복이 많은 것 같아도 산실도 빠른 고로 단순히 금전의 출입이 빈번함을 의미함에 불과하다. 의로운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며 돈복과 여자복은 많으나, 반대로 이로 인하여 재화를 당할 수도 많으니 조심할 일이다. 남자는 풍류심이 있어 외침을 두거나 여난을 당하기 쉬우며, 여자는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로

인하여 고생하는 수가 많다. 남녀 불문하고 타향에 나가 출세하는 경향이 많다. 식신 또는 상관이 있으면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강해지나, 비견이 있으면 약화된다고 설명한다. 정재는 백부 또는 백모를 표시하여 남자에게는 처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의미한다. 또 정재는 명예, 번영, 자산 또는 신용을 의미하고 복록과 길상을 나타낸다. 그 정신은 정의와 공론을 존중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며 의협심이 강하다. 그리고 명랑하여 주색을 좋아하며 결혼운이 좋은 반면 색정에 빠질 염려가 있다. 즉, 정재가 있으면 양처를 얻어 복록을 누리나, 정재가 많으면 여색으로 인하여 파재하여 생모를 극해하고 생가를 계승하지 못하기 쉽다. 사주 중에 겁재가 있으면 이와 같은 길상은 허무하게 되나 식신이 있으면 경복이 더욱 증가된다. 편관(偏官)은 일명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백모, 조부, 사촌형제 등을 표시하고, 여자에게는 정혼 외의 남편 또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편관의 특성은 권병, 완강, 투쟁, 성급, 흥폭, 고독 등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부려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저하나 협기가 있어, 여러 사람의 두목, 군인 또는 협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귀 또는 대부하는 사람 중에 편관이 있는 사주를 가진 이가 많다. 사주 속에 식신이 있으면 흥폭 등의 편관의 특성은 억제되어 길상만을 초래하나, 편재가 있을 때에는 특성이 억제되지 않고 더욱 증가된다고 설명한다.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정부와 조모를 의미한다. 특성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지발신하며 장상을 존경하는 것 등이다. 또 가계가 정통이며 명예 및 신용이 있으며 자비심이 많고 용모단정하고 인품이 순정하다. 이와 같이 정관은 길상을 나타내는 육신이나 사주에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해로워서 곤궁을 면치 못하며 여자는 일부종사하기 힘들다. 사주에 정재 또는 편재가 있을 때는 길조가 더욱 증가되나, 상관이 있을 때는 길조는 사라지고 오히려 권위 및 명예가 손상되고 상수 및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편인은 계모 및 유모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첩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낸다. 이 육신의 특성은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극한다. 이것이 편인을 도식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편인은 또한 파재, 실권, 병재, 이별, 고독, 박명, 색난 등을 의미하는 고로,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써도 불행은 찾아

오기 마련이다. 또 성질도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곧 권태를 느껴 나중에는 태만하여져서 매사를 용두사미로 끝내기 쉽다. 비록 도량은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수는 남자에게는 어머니 및 장모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사촌형제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녀 공히 손자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인수는 지혜, 학문 및 총명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인수가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결점도 있기는 하나 인의를 알고 자비심이 있으며 또 종교를 경신하고 군자 및 대인의 풍격이 있으며, 그 자질이 온후단정하여 신망을 얻으며 자산풍부, 복수쌍진, 무병식재, 산업진흥, 가도번영, 생애안락 등의 경향이 있다. 사주에 정재가 있으면 이와 같은 길상이 감퇴되나, 정관이 있으면 길조가 더욱 증가된다고 설명한다.¹⁶⁾

4.2 『설진관 명리학』 아학신결』에서 십성의 개념

『설진관 명리학』 아학신결』에서는 십성의 육친적 개념과 성향에 대하여 그간 명리학에서 보여준 영역을 확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십성의 육친적 개념에서, 남명기준으로 비견은 남자형제, 겁재는 여자형제, 식신은 장모, 상관은 조모, 처외삼촌, 외조부, 편재는 부친, 처남, 정재는 처, 고모, 편관은 딸, 정관은 아들, 외조모, 편인은 조부, 외삼촌, 정인은 모친, 장인으로 분류하고, 여명기준으로 비견은 여자형제, 시고모, 겁재는 남자형제, 시아버지, 식신은 아들, 상관은 딸, 조모, 외조부, 편재는 부친, 시어머니, 정재는 고모, 시외삼촌, 편관은 시누이, 애인, 정관은 남편, 외조모, 편인은 조부, 외삼촌, 정인은 모친으로 각 분류하는 등 비교적 상세한 분류를 하였다.¹⁷⁾

또 십성의 성향에 대하여, 비견은 자아, 공동체 의미(with), 생각, 망상, 도와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과 행동으로 분류하고, 겁재는 동조자 및 협조자, 대가를 바람, 악마 같은 마음, 행동, 행동(실천),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다, 궁리하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간다 등으로 설명한다. 식신은 성실과 노력, 만족, 육체노동, 고운 말, 신품, 온후독실, 지나친 활동(육체노동), 성실히 일을 하는 것, 칭찬을 받고 보수를 받는다 등으로 설명한다. 상관은 불평불만, 연구 및 발명가, 정신노동, 험한 말, 중고품, 고

16) 백영광(1983), 위의 책, 명문당. 80-101쪽.

17) 윤경선의 3인(2017), 『설진관 명리학』 아학신결』, 창조명리. 30쪽. 연구자 재구성.

물, 교만 방자, 적절한 활동, 잔머리, 창의적, 발명, 아이디어, 반항적(정신노동),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 재미가 없고 시간이 걸린다, 시비, 구설이 동반된다 등으로 설명한다. 편재는 첩이나 애인, 투기, 요행, 지출, 갚아야 할 빚, 투기의 돈, 불안정한 돈, 큰돈, 천천히 갚아야 할 빚, 특허, 좋은 잔머리도 썼으니 기술을 활용하여 돈을 좀 벌어 볼까하는 마음, 모험, 투기의 시작으로 설명한다. 정재는 월급, 노력, 성실의 대가, 안정적인 돈, 모험적인 것 말고 안정적인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등으로 설명한다. 편관은 무관(군인, 경찰, 무도인), 강권, 강제적으로 통제, 당장 갚아야 할 빚, 명예, 이제 안정을 좀 찾고 했으니 나도 명예를 갖고 싶어한다, 불안정한 자리 등으로 설명한다. 정관은 문관, 행정 관리, 훈육, 안정적인 지위, 편관의 안정된 모습이고 벼슬자리라고 설명한다. 편인은 계모, 종교, 계몽, 사상, 임기응변, 재치, 민첩, 직감 발달, 하늘의 심판을 기다린다, 이제 세상살이의 의미를 깨닫는다 등으로 설명한다. 정인은 학업 계약, 문서, 시험, 공부, 그런 가운데 이제 착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 확인 등의 의미로 설명한다.¹⁸⁾

5. 『과학명리』에서의 심성의 개념

5.1 『과학명리』에서 정의하는 심성의 개념

김기승(2016)은 『과학명리』에서 심성의 개념에 대하여 심성으로 인간이 가지는 고유의 심리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심리 분석은 주관성과 객관성, 이성과 감성의 체계로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사주내의 심성은 모두 이와 같은 이원적인 작용을 소유하고 있다. 주관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성품을 소유하는 과정들에서 사회성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직업적성도 예리하게 파악하게 된다. 또한 사주의 격과 심성의 분포를 통한 구조분석으로 개인의 이성과 감성적 성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대운 및 세운의 변화에 따라 사주 원국의 이성과 감성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성격 및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외향성과 내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면 외향과 내향 중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쳤을 뿐이다. 성격은 모두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환경에 의해 반응한다.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성격의 판

단은 이성과 감성의 구조체계와 연관성이 많다.”¹⁹⁾

이렇듯 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는 성격이나 적성뿐 아니라 사회관계, 직업유형 등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기승(2011)은 『사주심리치료학』에서 심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비견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성취욕과 추진력이 강하다. 불의와는 타협하기 싫어한다.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한다. 비견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자존심이 강하여 시비와 투쟁을 참지 못하는 면이 많다. 주위로부터의 충고나 권유를 무시한다. 걱정, 근심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겁재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성취욕과 추진력이 강하다. 주관이 뚜렷하며 사리사욕이 없고 불의와 타협하기 싫어한다. 겁재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질투심이 많고 교만하여 불손한 성향이 짙다. 도벽의 기질이 강하며 비열하고 음흉하다. 식신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성격이 관대하고 예의범절이 바르며 서비스 정신이 좋다. 허영과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추구한다. 식신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론과 말이 앞서고 행동과 실천은 잘 안된다. 일은 잘 벌리지만 인내심이 부족하고 마무리를 못한다. 상관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언변이 뛰어나 상대방을 말로 잘 설득한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낸다. 상관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활동적이며 시비를 가려내야 직성이 풀린다. 편재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계산이 빠르며 돈 버는 기술이 탁월하다. 요령이 많은 재주꾼이며 개척정신이 뛰어나다. 편재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민첩한 성격과 재능이 있으나 지구력이 없다. 언어가 낙천적이며 과장, 경솔한 면도 있고 사기성도 있다. 정재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부당한 재물이나 노력한 대가 이상의 재물은 원하지 않는다. 통솔력이 좋고 경영능력이 좋아 이익 창출을 잘한다. 정재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해득실은 빠르나 최종결론을 내리는 직기를 놓친다. 너무 정확한 계산으로 인심이 박하고 인색하다. 편관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권위적이며 총명하며 결단성이 뛰어나다. 개척정신과 모험심, 의협심이 있다. 편관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권모술수에 능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론과 타협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관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명예와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한 일처리로 타인의 모범이 된다.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에서 상사를 잘

18) 윤경선의 3인(2017), 위의 책, 40-42쪽, 연구자 재구성

19) 김기승(2016), 앞의 책, 다산글방, 367-384쪽.

모신다. 정관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자존심이 강하여 관용과 이해가 부족하다. 환경에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갈등을 많이 겪는다. 편인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기회 포착을 잘하며 예·체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종교에 심취하고 신앙심이 두텁다. 편인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매사에 기회주의적이며 자기 것만 챙기는 성향이 있다. 눈치가 빠르고 위선적이며 매사가 용두사미이다. 정인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전통과 명예를 지키려는 선비 기질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격이다. 박학다식하며 인자하고 윗사람을 섬길 줄 안다. 정인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많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매사에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하고 행동이 느리다” 20)

그리고 십성으로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십성의 심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십성의 심리구조²¹⁾

육신	십성	십성의 심리	
		긍정심리	부정심리
비겁	비건	“독립적이며 주체성”	“편향적(이기적)이며 자기심리”
	겁재	“주도적이며 지배성”	“배타적이며 우월심리”
	기능	“포용력, 책임감, 실행력, 추진력, 독립성, 적극성”	
식상	식신	“능률적이며 생산성”	“주관적이며 도취심리”
	상관	“창의적이며 예술성”	“과격적이며 이탈심리”
	기능	“친화력, 섬외력, 융용력, 설득력, 어휘력, 민첩성”	
재성	정재	“구조적이며 정밀성”	“소극적이며 회의심리”
	편재	“다변적이며 유용성”	“탐욕적이며 소유심리”
	기능	“활동성, 수리력, 현실성, 실용성, 조직력, 분석력”	
관성	정관	“조직적이며 자율성”	“자학적이며 수축심리”
	편관	“기획적이며 생산성”	“공격적이며 경쟁심리”
	기능	“조직력, 분별력, 관리력, 통제력, 인내력, 도덕성”	
인성	정인	“학문적이며 탐구성”	“폐쇄적이며 극단심리”

20) 김기승(2011), 『사주심리치료학』, 창해. 199-227쪽
 21) 김기승(2008), 위의 책, 서울: 창해, 361쪽. 『사주심리와 김기승(2008),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서울: 창해. 377쪽. 연구자 재정리.

편인	“분석적이며 직관성”	“냉소적이며 가학심리”
기능	“기획력, 창조력, 수집력, 기억력, 분석력, 논리성”	

그 외에도 김기승(2008)은 십성 발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면서 십성의 정신분석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1단계에서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성향 생리적 지향을 의미하는 설기(泄氣) 오행의 십성으로 욕구 변화를 탐색하고, 그 다음 2단계 과정에서는 십성을 생조(生助)하는 오행의 십성으로 욕구를 편성하여 잠재의식적 욕구인 “정신적인 성향의 기질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최종 3단계 과정에서는 이미 의식화가 완성된 욕구인인 사회적인 성향에 대한 지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3단계 과정은 십성을 더욱 분별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드러난 십성의 정신분석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십성(十星)의 정신분석²²⁾

구분	육구	무의식적 생리적 성향	잠재의식 정신적 성향	의식화된 사회적 성향
비견	본능계 영역	욕구를 성취하려는 강요된 욕구의 성질	에너지의 정체성과 실현 의지에 대한 탐색	외부의 요인과의 유연한 기여와 수용관계
식상	감성계 영역	재능의 다양성 및 현실 투사로 욕구의 증대	재능 발현과 에너지와의 상호 충돌	재능에 대한 현실화와 기회에 대한 착안
재성	욕망계 영역	의지를 투입하며 의지를 현실화	의지를 현장화 하기 위한 목적을 체계화	의지를 가시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성	중추계 영역	성취하려는 욕구의 팽창과 지적인 자산이 과잉된 상태	성취하기 위한 다변적인 구상과 모색	성취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험 정신
인성	사고계 영역	삶의 목표과잉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	설정된 목표와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최소화 유도	목표의 현실투사를 위해 지적 자원 활성화

22) 김기승(2008), 앞의 책, 서울: 창해, 340-346쪽.; 설진관(2021), 「경찰공무원의 위험감수수준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구자 재인용.

이와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주명식에는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성격, 행동, 사회적 활동 등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듯 개인의 자아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 타 육신들 간의 관계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코드로 의미부여가 된다.²³⁾

그리고 사주명식에서 목표의 지향이 되는 격(格), 활용적 가치가 되는 용신(用神), 흥미와 열정이 되는 천성(天性)분야에 심성을 배치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심성의 격, 용신, 천성의 내용²⁴⁾

심성	목표 지향: 격(格)	활용 가치: 용신(用神)	흥미와 열정: 천성(天性)
비견	강한 주체성으로 영역 확보 추구, 육체활동 및 공격 마인드 바탕 협동을 통하여 현실 이득 추구	융합과 협동경신 인적 네트워크 확보 경쟁을 적극활용	공적자세로 협동 현실적이득 추구 자기영역 확보와 주체적인 활동 실현 자존지능 우수
겁재	자기주도적인 경쟁력 공익과 명분 중시 리더십,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협동과 융화 인적 자원 활용 자신만의 기능과 특기를 확보	대의명분, 전문기술, 독창성으로 현실적 이익을 취득 경쟁지능 우수
식신	안정과 문화적 풍요 친화력 활용 연구, 교육, 제조, 가공, 생산성 지향	노력과 연구 자신만의 기술력 적극 활용.	홍보, 인적관리 능력, 미래지향적 기질 표현력, 설득력, 연구지능 우수.
상관	언어능력과 미적 감각이 뛰어난. 원만한 대인관계 설득력 및 차별화된 비판성을 지향	비판적 사고와 언어표현 능력을 갖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	마적인 변화를 추구 자유로움과 발상의 전환, 새로운 창조 설득과 비평의 언어적 표현지능 우수
편재	수리력과 직관에 의한 가치판단능력 현실적이고 신속한 성취 육구의 실현 결과와 유동성을 지향	고정관념 탈피 융통성, 현실감 살려 세상을 평가 폭넓은 시야 확보 신속한 가치판단 수리능력	낙천적인 인생관 자유로운 기질 도전의식 현실상황에 맞는 가치평가 평가지능 우수
정재	보수성, 정확성 안정된 실리 중시 설계능력과 정리정돈 치밀한 분석능력 신뢰성 지향	치밀한 계산과 정확한 계획 수립 사물의 이면을 평가, 규격화하는 능력	안정적, 장기적인 실리 추구 섬세하고 정돈된 행정업무 치밀한 경제활동 분석하고 계획

편관	리더십과 책임감 믿음대로 실천 권력 추구 신속, 과감한 판단 실천력, 관리능력 지향	신속한 결정과 분별력 인내심, 책임감, 관리능력	리더의 관리업무 변화에 과감한 결정력 대담한 심성 행동지능 우수
정관	원칙과 체계 중시 도덕적 가치와 공식성 바탕 명예, 권리, 안정성, 정통성 지향	도덕성, 보수성, 규정과 원칙을 활용 공정한 판단력	원칙을 중시 권리와 규정을 수행 공정한 판단력 수직적 행정업무 도덕지능 우수
편인	직관력, 추리력, 예술, 철학, 종교, 학문기회 포착 능력 복합적 사고력 발휘 전문성 지향	철학적 사고 직관력, 인식능력 전문성 배양	예술, 종교 초현실적 아이디어 창출 인식지능 우수
정인	전통과 의무 중시 명예와 학문 수용 보수성과 사명감학자의 전통성 지향	이론적 체계구축 공인된 자격 데이터의 기록과 정리	순서의 정확성 데이터관리 능력 완고한 신념 철학적, 교육자적 기질 사고지능 우수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사주명식에서 주어지는 심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정신적인 면과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육구의 영역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인간관계에서 활동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심성은 각각은 고유한 성격과 심리구조를 지닌 구별체로서, 심성의 상대적 작용인 상대성과 특별성 육구를 잘 이해한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하여 한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 인간관계,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특성을 알게 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²⁵⁾

이처럼 김기승이 제시한 심성의 개념과 특성은 기존의 명리학에서 육신이라고 주어졌던 심성이 단순히 가족관계의 설정에 국한되지 않고 각 개인의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대를 시도한 것은 명리학계에 큰 이슈가 됨으로써, 물질문명에 비인간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인간의 심리적 치료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정신분석학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적 성향을 분석하는 영역에도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육친 혹은 육신이라 불리는 심성의 근원과 주요고전에서의 심성의

23) 김미라·백용매(2010),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3(2), 33-45쪽.

24) 김기승(2009), 『명리직업상담론』, 267-269쪽. 연구자 재구성.

25) 김기승(2011), 『사주심리치료학(개정증보)』, 서울: 창해, 333쪽.

의미를 확인하고, 현대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십성의 개념을 분석하며, 단순한 육친관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십성의 개념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명리학에서 육친의 관념을 정하고 육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연해자평』이다. 『연해자평』 『삼명통회』 『자평진진』 등 주요 고전 명리학에서 설명하는 십성의 내용은 대부분 순수 육친이라는 설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3년에 발간된 『사주정설』에서는 육친의 설정에 그친 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십성의 작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김기승의 『과학명리』는 십성의 개념을 단순히 육친관계와 작용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심리와 선천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고전에서의 십성의 개념과 현대 명리학에서 김기승의 『과학명리』에서 설명하는 십성의 개념과 성향을 대비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십성에 대한 인식 및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명리학 연구에 발전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김미라·백용매(2010),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3(2).
- [2] 박재범(2018), 「命理學의 滴天髓, 子平眞詮, 窮通寶鑑 用神論 比較 研究」,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설진관(2021), 「경찰공무원의 위험감수수준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이기선(2016), 「경방역의 구성체계와 응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정하용(2013), 「卦氣易學과 命理學의 원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김기승(2008),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서울: 창해.
- [7] 김기승(2009), 『명리직업상담론』, 서울: 창해.
- [8] 김기승(2011), 『사주심리치료학』, 서울: 창해.

- [9] 김기승(2016),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 [10] 윤경선, 김초희, 김재근, 조소민(2017), 『(설진관 명리학) 야학신결』, 대구: 창조명리.
- [11] 이석영(2002), 『사주첩경』, 서울: 한국역학교육원.
- [12] 萬民英(2002),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社.
- [13] 盧央(2004), 『京氏易傳解讀』, 九州出版社.
- [14] 徐升(2011), 『淵海子平』, 台北: 進源書局.
- [15] 徐樂吾(2009), 『子平眞詮評註』, 臺灣: 武陵出版.

이 남 연(Lee, Nam-Yeon)



- 2020년 08월~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명리학 강사
- 2010년~2013년 : 한국사이버대학교 (現송실사이버대학교) 경찰교정학과 형사법 강사 역임
- 2021년 1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박사과정
- 2012년 08월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박사)
- 1996년 08월 : 부산대학교 (법학사)
- 관심분야 : 명리학, 법학
- E-Mail : magoo11@hanmail.net

김 기 승(Kim, Ki-Seung)



- 2012년 0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2005년 03월~2011년 04월 : KICU 대학원 교수
- 2014년 0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졸업 (직업학박사)
- 2011년 02월 : KICU대학원졸업 (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